

S-OIL, 5조원 투자해 석유화학 2단계 사업 추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본사 사옥

에쓰오일(S-OIL)이 석유화학 설비 마련에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미래 성장 엔진 확보에 나선다.

'RUC/ODC'(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올레핀 다운스트림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이은 2단계 작업으로 이를 통해 종합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에쓰오일은 연간 150만t 규모의 스팀 크래커와 올레핀 다운스트림 시설을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 중이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로 2023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스팀 크래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부생가스를 원료로 투입해 에틸렌과 기타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는 설비로 원료 조달과 원가 경쟁력에서 이점이 있다.

에쓰오일은 2단계 프로젝트 건설 과정 중 연평균 270만 명, 상시 고용 400명 총원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업계 활성화,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봤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가 RUC-ODC 프로젝트 이후 회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경쟁력 제고,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 등을 통해 회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S-OIL 온산공장 석유화학 생산시설인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 전경

에너지·화학산업의 가장 경쟁력 있는 이름 에쓰-오일이 뛰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수출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석유화학 분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에쓰-오일 국내 석유화학 단일 플랜트 투자 중 최대 규모인 RUC-ODC 프로젝트로 핵심사업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굳건히 다지며 더 큰 내일로 도약합니다

